



다시 커지는 금리모멘텀 재부각 가능성

은행 Weekly | 2026.8.31

Analyst 최정옥, CFA cuchoi@hanafn.com

RA 정소영 soyoungjung@hanafn.com

전주 주요 뉴스 기사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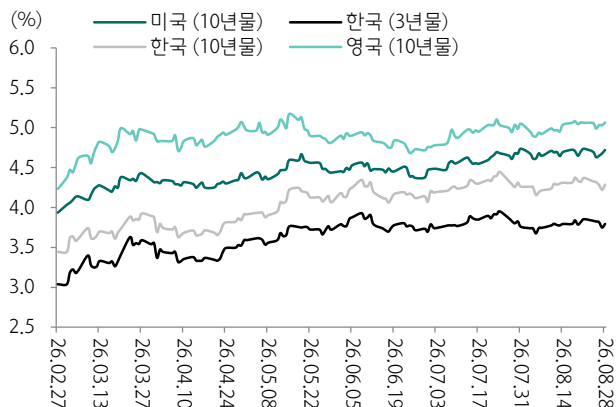
- 은행권의 ETF 신탁 판매수수료 체계가 수술대에 오를 전망. 현재 은행 ETF 판매 수수료는 약 100bp로 증권사의 두 배 수준이며, 향후 단기매매에 유리한 후취수수료를 기본 적용하고 장기 보유시 선·후취 중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 중
- 예보료 인상이 추진되고 있지만 은행권 예금보험 관련 전체 비용 부담은 오히려 낮아질 전망. 새 요율이 적용되는 2028년 은행권이 별도로 납부해온 0.10%의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 특별기여금도 종료되며, 명목요율 기준 부담은 0.05%p 낮아질 전망
- 금융당국이 가상화폐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보유 한도를 거래소 규모나 시장점유율과 무관하게 20%로 정하는 방안을 추진. 이르면 다음달 초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내놓을 예정. 다만 일부 예외에 대해서는 최대 34%까지 인정하는 방안 논의
- 롯데손보의 지분 77%를 보유한 JKL파트너스는 신한지주와 수익계약 형태로 가격 협상을 진행해왔으나 사실상 무산되면서 공개 매각 절차에 착수. 한편 KB국민은행은 베트남 대형 민간은행인 테크콤뱅크의 지분을 최소 15% 인수하는 방안을 협의 중

Valuation, Performance 및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

(2026년 8월 28일 종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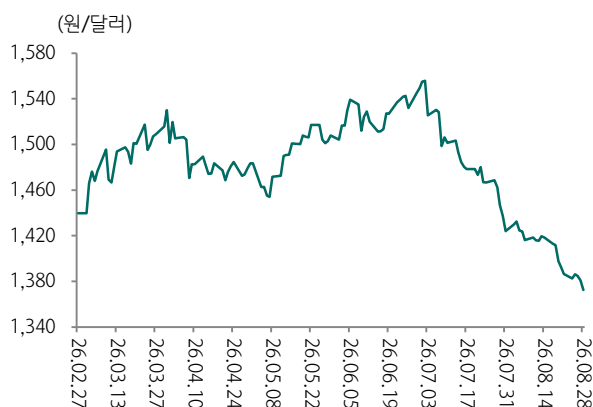
	PBR (2026F)	PER (2026F)	ROE (2026F)	ROA (2026F)	Mkt. Cap. (bil.)	Performance (%)				Weekly Net Buy (십억원)			
						1W	1M	3M	YTD	국내기관	(연기금)	외국인	개인
KOSPI	1.56	6.6	23.8		5,596,620.9	-1.8	12.7	-19.9	61.1	-344.9	-179.5	-8,229.1	485.0
은행	0.72	8.2	9.0	0.64	214,390.9	5.3	6.1	13.9	31.3	331.2	-2.6	-124.0	-206.2
KB 금융	0.94	9.2	10.4	0.79	60,864.4	4.4	3.9	13.9	37.6	76.2	-7.9	-14.4	-60.5
신한지주	0.83	9.9	9.5	0.68	51,498.7	5.4	8.7	17.2	42.7	98.7	-9.9	-65.6	-32.9
우리금융	0.61	7.7	8.3	0.52	24,682.2	6.8	6.8	14.1	21.1	58.2	20.5	-18.2	-44.1
하나금융	0.74	8.4	9.3	0.64	37,314.0	5.6	10.6	18.2	44.5	69.9	-3.4	-36.2	-32.2
기업은행	0.44	6.0	7.5	0.54	16,626.3	4.3	2.2	3.2	-0.5	10.9	0.6	16.8	-25.7
BNK 금융	0.41	5.7	7.4	0.50	4,692.1	5.7	-12.4	-10.1	-4.7	3.4	-0.6	0.1	-3.4
iM 금융	0.43	5.9	7.5	0.47	2,869.5	5.5	8.2	4.5	16.5	6.4	-1.4	-3.5	-3.1
JB 금융	0.82	7.2	12.1	1.00	5,418.5	9.2	6.4	21.5	13.3	7.4	-0.5	-3.0	-4.4
카카오뱅크	1.46	18.0	8.3	0.73	10,425.1	2.6	2.6	-2.5	1.2	7.5	-3.9	-3.4	-4.0
삼성카드	0.60	8.7	7.0	1.90	5,480.1	2.5	-0.3	2.5	-15.4	1.7	-0.3	-1.8	-0.4

최근 6개월 글로벌 금리 추이



주: 국고채 10년물 기준, 한국은 3년물과 10년물

최근 6개월 원/달러 환율 추이



주: 원/달러 환율은 종가 기준

전주 평가와 금주 전망

- 전주 은행주는 5.3% 상승해 KOSPI 하락률 1.8%를 초과상승. 은행주가 다시 초과상승세를 보인 이유는 1) 반도체 업종이 하락 양상을 보이면서 건설, 소비재 등 비반도체 업종의 순환매성 주가 상승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주도 상승세가 나타났으며, 2) 국내 기준금리 인상 및 원/달러 환율 하락 등 은행주에 우호적인 매크로 환경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 다만 기준금리 연속 인상에도 선제적 인상 강조로 향후 인상 속도가 둔화될 것이라는 점 때문에 국채금리는 오히려 하락한 점이 은행주 상승 폭을 제한하는 모습이었음. 3) 또한 국내 기관이 2분기 실적 시즌 이후 오랜만에 실질 순매수(은행 자사주 매입분 제외)로 돌아선 점도 주가 상승에 일조. 지난주 미국 국채금리는 추가 상승.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9월 미국 기준금리 인상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 미국 2년물 국채금리는 4.36%로 한주간 12bp 추가 상승했으며, 국채수익률 곡선 평탄화로 10년물 국채금리는 4.73%로 1bp 하락. 국내 국채금리는 금통위 결과를 반영하며 반락. 국내 3년물 국채금리는 3.79%로 6bp 하락했고, 10년물은 4.28%로 한주간 10bp 하락. 한편 원/달러 환율은 국내 기준금리 연속 인상과 외환시장의 달러 수급 개선 등으로 추가 하락. 1,379.5원으로 마감해 1,380원선마저 하회했고 한주간 6.5원 추가 하락. 외국인도 지난주에 KOSPI와 은행주를 각각 8.2조원과 1,240억원 순매도한 반면 국내 기관은 KOSPI를 3,450억원 순매도했지만 은행주는 3,310억원을 순매수. 은행들의 자사주 매입분 1,500억원 내외를 제외해도 오랜만에 대규모 순매수를 나타냄
- 지난주 특징주는 JB금융. JB금융은 최근 업종내에서도 고베타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데 은행업종이 반등세를 나타내자 한주간 주가가 9.2% 상승하는 등 상승 폭이 가장 컸음. 그 외 대형은행 중에서는 우리금융 주가가 6.8% 상승해 강세를 나타냄. 3분기에 타행들대비 양호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 전전주 하락 폭이 컸던데 따른 리바운드 성격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 또한 8월 20일 이후 지속되던 외국인 순매도세가 멈추고 28일에는 상당폭 순매수로 돌아선 점도 주가 강세에 기여
- 주요 언론에 따르면 국민은행이 베트남 대형 민간은행인 테크콤뱅크 15% 지분 매입을 협의하고 있다고 보도. 20억달러로 한화 약 2.8조원 규모의 거래라는 설명. 테크콤뱅크는 최근 3개년 평균 ROE 15%, ROA 2.2% 내외로 양호한 수익성 보유. 현 주가는 PBR 1.3배 내외에 거래되고 있으며 15% 지분 20억달러는 약 1.85배로서 현 주가 대비 프리미엄은 45% 수준임. 은행에서 인수할 경우 그룹 CET 1 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다만 KB의 경우 카자흐스탄 BCC,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을 인수해 대규모 손실을 기록했던 선례가 있어 1조원 미만의 지분 인수 정도라면 몰라도 또다시 수조원 단위의 대형 M&A를 시도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 과거 M&A 성공 사례는 경영권 인수가 아닌 지분투자를 했던 인도네시아 BE은행 정도였음. 한편 신한지주의 롯데손보 인수딜은 결국 결렬되었고, JKL은 공개매각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짐. 경영권 지분 77%에 대해 신한지주는 7,000억원대, JKL파트너스는 1조원 이상을 희망해 가격차이가 컸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음. 협상이 결렬되었다고 하더라도 오버페이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신한지주 주가에 부정적이지 않고, JKL 인수금융 만기가 내년에 도래하는데다 경쟁자도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공개매각 절차 실시 이후 신한지주와의 재협상 여지도 상당하다고 판단
- 한은 금통위는 우리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인상. 선제적 인상이라는 표현에 국채금리가 하락했지만 속도의 문제일 뿐 금리 인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 6개월 점도표상 3.5%에도 6개나 표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내 국채금리 하락 현상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여기에 미국 워시 의장의 잭슨홀 연설에서의 매파적 발언도 글로벌 금리 모멘텀이 다시 부각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 물론 백악관과의 긴장 구도를 감안시 립서비스에 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9월 중순 FOMC 회의까지는 금리 인상 기대심리가 지속될 것이고, 이는 은행주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전망
- 당분간 반도체보다는 비반도체 업종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인데다 매크로 환경도 은행주에 우호적인 상황 지속 중. 7월 KB증권 실적이 시장의 우려보다 나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 등 은행지주사 분기 실적 피크아웃 우려도 다소 약화될 수 있을 전망. 물론 소소한 규제 이슈들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국고채 입찰 담합 관련 과징금 불확실성 등도 우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실제 부과 규모는 우려보다 상당히 작을 것으로 예상. 9월은 8월의 조정 양상에서 벗어나는 주가 흐름 기대

주간 선호 종목 - 주간 단위의 단기 선호 종목으로서 당사 최선호 종목 및 중장기 선호 종목과는 다를 수 있음

우리금융(매수/TP 43,000원), KB금융(매수/TP 220,000원)

- 우리금융은 3분기의 이익가시성이 경쟁금융지주사들 대비 높은 상황이며, 최근 갑작스러운 외국인 매도 확대 현상도 서서히 완화되는 분위기. CET 1 비율 급등으로 주주환원 확대가 기대되는데다 현 PBR 0.61배에 불과해 상대적 valuation 매력도 높음
- 최근 외국인들의 KB금융에 대한 순매도세 현저히 약화. 우려와 달리 3분기 실적도 상당히 양호할 가능성이 높으며, 홍콩 ELS 과징금 환입시 2분기에 육박하거나 상회하는 순익 시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업종내 주도주로 재부각될 여지가 높은 편

Global Peer Table

(2026년 8월 28일 종가 기준)

	PBR (2026F)	PER (2026F)	ROE (2026F)	ROA (2026F)	Mkt. Cap. (bil.)	Performance (%)			
						1W	1M	3M	YTD
KOSPI	1.56	6.6	23.8		5,596,620.9	-1.8	12.7	-19.9	61.1
은행	0.72	8.2	9.0	0.64	214,390.9	5.3	6.1	13.9	31.3
KB금융	0.94	9.2	10.4	0.79	60,864.4	4.4	3.9	13.9	37.6
신한지주	0.83	9.9	9.5	0.68	51,498.7	5.4	8.7	17.2	42.7
우리금융	0.61	7.7	8.3	0.52	24,682.2	6.8	6.8	14.1	21.1
하나금융	0.74	8.4	9.3	0.64	37,314.0	5.6	10.6	18.2	44.5
기업은행	0.44	6.0	7.5	0.54	16,626.3	4.3	2.2	3.2	-0.5
BNK금융	0.41	5.7	7.4	0.50	4,692.1	5.7	-12.4	-10.1	-4.7
IM금융	0.43	5.9	7.5	0.47	2,869.5	5.5	8.2	4.5	16.5
JB금융	0.82	7.2	12.1	1.00	5,418.5	9.2	6.4	21.5	13.3
카카오뱅크	1.46	18.0	8.3	0.73	10,425.1	2.6	2.6	-2.5	1.2
삼성카드	0.60	8.7	7.0	1.90	5,480.1	2.5	-0.3	2.5	-15.4

미국

S&P 500	5.19	21.5	22.9	6.01	68,775.4	0.5	3.9	2.2	12.7
은행	1.74	13.1	13.3	1.15	2,323.6	1.3	-0.7	16.9	9.4
Wells Fargo	1.54	12.5	13.3	1.03	262.2	3.4	0.4	13.7	-7.0
JPM	2.59	14.5	18.8	1.38	950.6	1.7	0.1	21.1	11.0
CITI	1.13	12.0	10.0	0.71	222.9	0.9	0.8	7.1	13.9
BOA	1.54	13.4	12.2	0.99	435.8	1.0	-0.5	23.4	13.3
US Bancorp	1.54	11.9	13.4	1.18	97.3	0.7	-3.0	15.7	17.1
PNC	1.61	12.6	13.2	1.27	96.6	-0.4	-3.7	11.1	16.0
BB&T	1.02	10.9	9.6	1.05	61.6	0.0	-3.9	6.5	2.5

중국

상해A주지수	1.38	14.0	10.1	1.44	63,502.4	1.2	3.8	-2.4	-0.4
은행	0.70	7.5	9.4	0.69	12,488.8	1.1	0.0	9.7	-4.4
공상은행	0.68	7.6	9.1	0.68	2,673.7	1.2	-1.4	11.6	-0.9
건설은행	0.74	8.1	9.6	0.73	2,112.4	1.5	0.5	8.1	15.2
농업은행	0.81	8.2	9.8	0.59	2,331.9	0.1	-2.4	9.3	-11.6
중국은행	0.69	8.3	8.5	0.64	1,877.3	2.3	1.5	8.7	8.0
교통은행	0.51	6.7	7.8	0.62	604.5	-0.3	-0.1	11.3	-2.1
초상은행	0.83	6.6	13.0	1.13	1,004.9	1.2	-0.6	8.9	-6.5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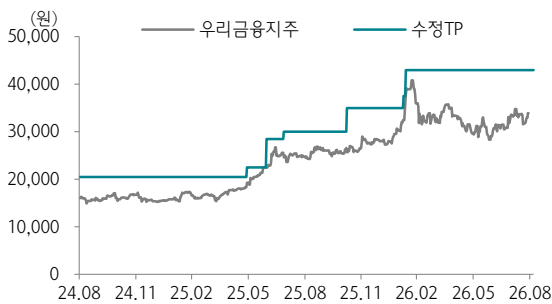
NIKKEI	2.85	21.5	12.9	4.61	1,057,353.7	0.6	6.5	2.8	31.9
은행	1.50	15.2	9.7	0.51	148,789.5	4.5	2.5	21.3	47.8
Mitsubishi UHF	1.94	18.5	10.8	0.61	43,412.1	4.3	-0.1	22.7	46.7
Sumitomo Mitsui Financial	1.69	16.6	10.8	0.61	26,235.4	4.5	-0.5	18.0	36.9
Mizuho	1.88	17.4	11.4	0.43	20,729.9	4.6	3.4	20.1	48.9
Sumitomo Mitsui Trust	1.49	16.6	9.3	0.37	5,002.1	4.3	5.7	28.9	49.8

유럽

MSCI Europe	2.41	16.0	14.4	1.77	15,764.7	0.1	1.5	5.4	10.8
은행	1.56	11.5	13.7	0.75	2,226.5	0.4	2.3	15.5	21.0
HSBC	1.89	12.3	15.5	0.85	262.4	0.7	-2.5	10.2	30.2
Santander	1.70	12.3	13.9	0.79	190.9	1.3	3.9	19.1	26.2
BNP Paribas	0.92	8.8	10.9	0.45	113.0	-4.6	-5.2	11.8	26.9
Credit Agricole	0.75	8.0	9.8	0.29	55.8	-3.3	-1.2	12.6	5.1
Deutsche	0.98	10.4	9.6	0.44	66.4	7.5	12.0	26.8	5.0
Unicredit	1.77	11.5	16.4	1.23	127.7	2.0	3.8	16.2	1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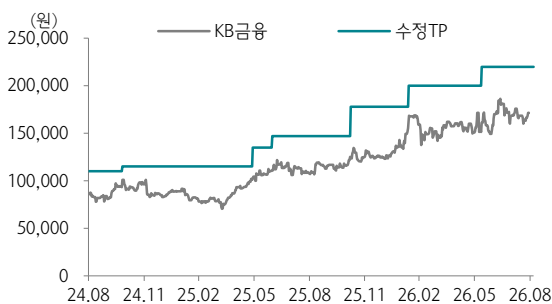
투자 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우리금융



날짜	투자 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2.11	BUY	43,000		
26.2.7	BUY	37,500	-6.47%	-5.07%
25.11.7	BUY	35,000	-19.83%	-7.29%
25.7.28	BUY	30,000	-15.26%	-10.50%
25.6.30	BUY	28,500	-13.16%	-6.14%
25.5.29	BUY	22,500	-7.11%	0.22%
24.8.29	BUY	20,500	-20.23%	-10.54%
24.3.21	BUY	19,000	-23.12%	-12.63%

KB금융



날짜	투자 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6.12	BUY	220,000		
26.2.11	BUY	200,000	-22.36%	-14.20%
25.11.7	BUY	178,000	-27.10%	-12.64%
25.6.30	BUY	147,000	-22.33%	-14.76%
25.5.29	BUY	135,000	-20.30%	-16.81%
24.10.25	BUY	115,000	-24.56%	-11.30%
24.7.24	BUY	110,000	-21.71%	-11.64%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하나금융지주의 계열사입니다.
- 당사는 2026년 8월 31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최정욱)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최정욱)는 2026년 8월 31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등급 관련사항 및 투자 의견 비율공시

- 투자 의견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이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

기업의 분류

BUY(매수)_목표주가가 연주가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목표주가가 연주가 대비 -15%~15% 등락
Reduce(비중축소)_목표주가가 연주가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산업의 분류

Overweight(비중확대)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Underweight(비중축소)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투자등급	BUY(매수)	Neutral(중립)	Reduce(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율	98.20%	1.80%	0.00%	100%

* 기준일: 2026년 8월 28일